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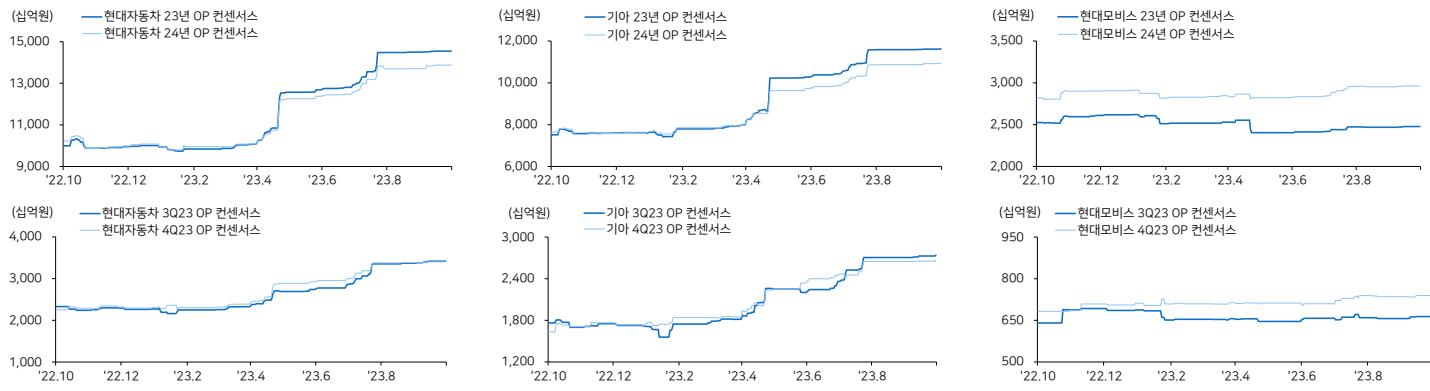
MOBILITY at a glance

2023. 10. 6 (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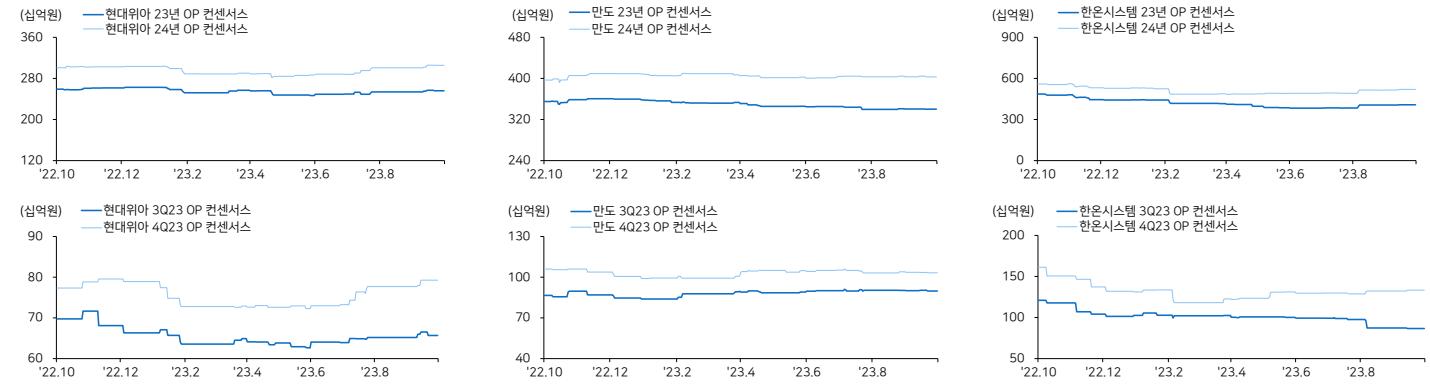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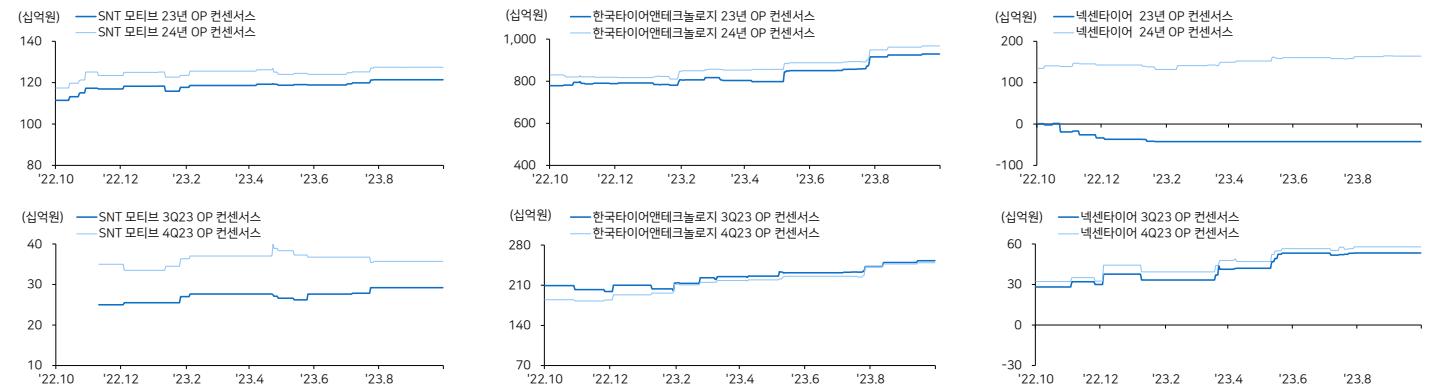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Plugs Get Another Charging Win. Hyundai Will Use NACS (BARRON'S)

현대차가 북미에서 Tesla의 NACS를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 2024년 4분기 출시되는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NACS 소켓 장착 예정. 현대차 전기차 운전자들은 북미 전역에 설치된 12,000여개의 Tesla Supercharger를 이용 가능할 전망

<https://han.gl/bJnobj>

Xiaomi reported to make EREVs as Chinese EV makers look to boost sales with hybrids (CnEVPost)

중국 언론 36Kr은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부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개발할 것이라 보도함. 샤오미는 현재 1세대 전기차용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2025년 2세대 플랫폼 출시와 함께 EREV가 공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

<https://han.gl/pHzMir>

EU, 中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한다 (디지털투데이)

유럽연합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법위원회는 이날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기반 전기차(BEV)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https://han.gl/7yNtVg>

토요타, 2025년 초소형 전기차 출시…스즈키 협력 박차 (디지털투데이)

일본 도요타가 소형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와 협력해 bZ 시리즈의 가장 작은 전기차를 개발 중. 전기차 전문매체 Eletrek에 따르면 이 차량은 토요타 bZ4X 전기 SUV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e-TNGA 플랫폼을 탑재할 예정

<https://han.gl/Vz0sf>

Volvo Cars September sales rise 25%, demand up in China (Reuters)

볼보의 9월 판매량은 중국 등 주요국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61,666대를 기록 (미국 +65%, 유럽 +32%, 중국 +4%). 9월 BEV 판매는 YoY 52% 증가하여 한 달 동안 판매된 차량의 15%를 차지

<https://han.gl/yokWCf>

Tesla asks Mexico to solidify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Gigafactory (Teslarati)

Tesla는 멕시코에 대규모 기가팩토리를 건설에 앞서 에너지, 수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청함. 지난달Tesla는 주정부로부터 환경 영향 허가를 획득하여 26개월간 부지 개간 등의 초기 건설 활동을 수행 가능

<https://zr.kr/1oE>

Ford says potential investor in Saarlouis plant pulls out (Reuters)

Reuters는 올해 6월에 논의된 독일 Saarlouis 공장의 창업자와 Ford 간의 협약이 결렬된 것으로 보도함.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될지 업계는 우려

<https://zr.kr/a7A>

현대차가 준비중인 비밀병기 정체는…업글로 전화하는 '이것' (매일경제)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기아는 CES2024에서 SDV와 PBV를 최초로 공개 할 예정으로 현재 전시 컨셉트를 최종 논의 중인 단계. 현대차는 포터블다이어렉션식으로 역할을, 기아는 배터리 차량이 첫 출시될 예상

<https://zr.kr/1oC>

The US needs 100x more EVs to reach net zero by 2050 (Electrek)

ICF에 따르면 단소총량을 위해 미국에서 2050년까지 2억 4,00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 ICF는 현재보다 100배 이상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배터리 제조 확대, 공공 충전소 확립, 전기 대중교통 등을 제시

<https://han.gl/GpmFCW>

"10월 자주행 심야버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연합뉴스TV)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보다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

<https://han.gl/jYjRI>